

USTR, 2003년 NTE 보고서 발표

[자료원 : USTR 4. 1]

2003년 4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03년 외국 무역장벽에 관한 국가별 무역보고서(200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NTE 보고서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미국인에 의한 외국 직접투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외국 장벽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러한 목록을 바탕으로 USTR은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 NTE보고서는 한국관련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정부가 IPR 법률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인하여 한국은 2002년 스페셜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한미 양 정부는 양자간 정기 무역 협의의 일부로 2002년 동안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여러번의 협의를 가졌고,

미국은 2002년 동안 한국이 다짐한 집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내의 새로운 특별단속반에 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노력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할 것, 그리고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전송권을 설립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집행 노력의 투명성, 일시적인 저장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그리고 당사자제 구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소급적 보호의 부재, 소비재의 지속적인 위조행위, 의약품 특허, 의약품 시장 승인에 대하여 한국 보건 당국과 IPR 관련 당국간의 조정 부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 2002년에는 한국의 영화 및 비디오 등급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허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 영화들이 부당하게 한국에서 등록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2003년 상반기에 국회에 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과 함께 잠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는 잠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Patent 21 2003년 5월호

(통권 제47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경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 획 : 최승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 자 인 : IDO (02-3445-9849)
 인 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